

엑셈, 리벨리온과 NPU 기반 AX 사업 협력 MOU

등록 2026.04.30 10:57:25



(왼쪽)김광정 리벨리온 사업 총괄, (오른쪽)류길현 엑셈 전무. (사진=엑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엑셈은 리벨리온과 NPU(신경망 처리 장치)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엑셈에 따르면 이번 MOU를 계기로 두 회사는 리벨리온의 고성능 NPU 기술과 엑셈의 AI 솔루션·인프라 구축 역량을 결합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할 예정이다.

엑셈은 최근 국내 처음으로 리벨리온 NPU 성능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출시했다. 두 회사는 엑셈의 공공 영업력을 십분 활용해 리벨리온의 NPU 및 엑셈의 NPU 성능 관리 솔루션 공공 부문 판로 개척에 힘쓰는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부처, 광역지자체, 대형 공공기관 등 공공 핵심 고객 대상으로 공동 영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두 회사는 리벨리온의 차세대 NPU 출시 일정에 맞춰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검색 증강 생성(RAG)과 거대 언어 모델 운영(LLMOps) 등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긴밀한 기술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고평석 엑셈 대표는 "리벨리온과 함께 국산 AI 반도체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